

La Comédiathèque

격리

Jean-Pierre Martinez



comediatheque.net

저작권 및 공연권

본 작품의 텍스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자의 사전 허가 없이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각색 또는 변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희곡은 개인적인 열람을 목적으로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및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모든 공개 공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스(Jean-Pierre Martinez)는 프랑스 작가·작곡가 협회인 SACD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허가 및 저작권에 관한 문의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eanpierremartinez.net/en/contact-2/>

격리

Jean-Pierre Martinez

번역 및 각색: 저자

서로 모르는 네 사람이 뜻하지 않게 격리된다. 그들이 갇힌 곳은 폐쇄된 극장으로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 너머에서 사람들, 즉 관객들이 그들을 지켜본다. 감염자로 의심받는 네 사람은 의문을 품는다. 대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까? 정확히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끝날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밀실극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이 격리의 이유가 꼭 의학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등장인물:

돔
팻
맥스
샘/킴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인물은 중성적이고 심지어 획일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우들은 공연 중 역할을 바꾸어 말아도 된다. 각 역할은 의상으로 구분한다(파랑 분홍 초록 계열의 환자복, 흰색 의료진 가운, 검은색 스탠드칼라 제복). 이 버전에서는 돔과 맥스가 남성, 팻과 샘/킴이 여성이다.

제 1 막

무대는 의자 한두 개를 제외하면 비어 있어도 된다. 둠이 머뭇거리며 들어온다. 병원 환자들이 입는 것 같은 가운(파랑, 분홍 또는 초록색)을 입고 있다. 주위를 의아하게 둘러보다가 관객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가 관객들을 살펴본다. 같은 옷을 입은 팻이 뒤에서 들어온다.

팻 – 안녕하세요.

놀란 둠이 움찔하며 돌아서서 팻을 본다.

둠 – 깜짝 놀랐잖아요...

팻 – 죄송해요... 그럼 당신도...?

둠 – 네...

어색한 침묵.

팻 – 우리 전에 본 적 있죠?

둠 – 같은 객차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팻 – 13 호차, 맞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둠 – 관계요? 13 이라는 숫자 말인가요?

팻 – 우리가 둘 다 여기 있다는 것하고요! 같은 객차에 있었잖아요...

둠 –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팻 – 저도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둠 – 경찰이 확실했어요?

팻 – 아마도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마스크 말고... 병원에서 쓰는 거요. 저를 구급차에 태우더니...

둠 – 구급차가 확실해요? 경찰이었다면 좀 이상한데...

팻 – 그럼... 뱅이라고 해두죠.

둠 – 의료용으로 개조한 경찰 뱅.

팻 – 네, 그런 거였어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서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당신은요?

둠 – 똑같아요... 그럼 당신한테도 아무 설명이 없었던 거군요.

팻 –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둠 – 그리고... 다른 말은 못 들었어요?

팻 – 아니요... (잠시) ‘격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둠 – 아, 그래요...?

팻 – 당신도 들었어요?

둠 – 정확히는...

팻 – 그게 제일 그럴듯하지 않아요?

둠 – 격리라... 그 밖에 뭐가 있겠어요.

팻 – 그러면 마스크도 설명이 되고요.

둠 –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뭘 하죠?

팻 – 기다려야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고.

잠시/

둠 – 격리라... ‘카랑텐(quarantaine)’이라는 말은 원래 ‘마흔’에서 나왔다죠. 정말 사십 일이나 계속되면... 그 전에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군요.

팻 – 어원이 그렇다는 거지... 꼭 사십 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병에 따라 다르죠.

둠 – 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팻 – 그럼 뭐겠어요? 격리까지 하는데...

둠 – 그렇군요... 바이러스겠죠.

팻 – 전염성이 아주 강한가 봐요.

둠 – 아마도요.

팻 –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당신은요?

둠 – 저도요.

팻 – 그래도... 병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잠복기가 있으니까요.

둠 – 의사예요?

팻 – 정보처리원이예요.

둠 – 정보처리원?

팻 – 예전에는 IT 기술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둠 – 그렇군요... 그럼 바이러스는 잘 아시겠네요.

팻 – 저는 아이가 셋이라서요... 당신은요?

둠 – 전 아이가 없어요.

팻 –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당신도 의사는 아니죠?

둠 – 저는 훈련관입니다.

팻 – 훈련관...

둠 - 예전에는 교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일쯤이면... 조련사라고 부를지도 모르죠.

팻 - 알겠어요...

둠 - 정말요? 뭘 알겠다는 거죠?

팻 - 아니,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모르신다는 뜻이에요...

잠시.

둠 - 그러니까 잠복기는 바이러스마다 다르다는 거죠?

팻 - 그렇죠... 감염되고 일주일 뒤에 첫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빠를 수도, 더 늦을 수도 있어요.

둠 - 의사도 아닌데 전염병이 퍼지는 방식에 꽤 밝으시네요...

팻 -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셋이라고. 한 명이 아프면 며칠 뒤 다른 둘도 따라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둠 - 하지만 우리 안 아프잖아요!

팻 - 본인이 아프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어요.

둠 -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면.

팻 - 그래서 격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곧 설명해 주겠죠.

둠 - 그러겠죠...

맥스가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들어온다.

둠 - 아... 미친 사람이 많을수록 웃음도 커진다고...

팻 - 미친 사람이 많을수록 웃음도 커진다고요?

둠 -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 많을수록 웃음도 커진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팻 - 저분이라면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맥스가 상당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관객 쪽으로 다가간다.

둠 - 글썄요. 별로 제정신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팻 - 안녕하세요.

맥스 - 아, 안녕하세요... 저...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둠 - 우리가 방금 왔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맥스 - 네?

둠 - ‘저도 방금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왔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몇 주째 여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맥스 - 몇 주째 여기 있었어요?

팻 – 우리도 방금 왔어요.

맥스 – 아... 그럼 저랑 같네요... 제 말이 맞았군요.

팻 – 네...

맥스 – 그런데...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둠 – 그건 오히려 당신이 알려주길 기대했는데요...

맥스 – 몰라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붙잡혔습니다. 설명 한마디 없어요. 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팻 – 저도 그래요... 집에서 아이 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도 있긴 하고요. 당신은요?

맥스 – 전 결혼 안 했어요. 남쪽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 보러 잠깐 갔다 온 것뿐입니다.

둠 – 어머니도 아프세요?

맥스 – 대퇴골 경부가 부러졌어요.

팻 – 적어도 그건 전염되진 않겠네요...

맥스 – 그래도 제 손해는 누가 물어줍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할 공사가 두 건이나 있는데...

팻 – 보상금이 나올지도 모르죠. 기술자세요?

맥스 – 배관공입니다.

둠 – 꼭 필요할 땐 그렇게 찾기 힘들더니...

맥스 – 네?

둠 –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팻 – 배관공... 그 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둠 – 요즘은 수리기사라고 하죠.

팻 – 아, 맞다...

둠 – 이분은 전문 수리기사예요. 파이프, 배관, 수도꼭지 같은 걸 고치는 사람... 예전 말로 배관공이죠.

맥스 – 맞습니다.

둠 – 그럼 당신도 우리가 왜 여기 갇혔는지는 모르는 거군요?

팻 – 우리가 갇혔다고 생각하세요?

둠 – 문이 잠겼든 아니든, 격리 중이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맥스 – 그럼 정말 격리됐다고 생각하세요?

둠 – 여기 전문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전염성이 있어서 따로 격리된 거래요.

맥스 – 바이러스요? 무슨 바이러스?

팻 – 그건... 아마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겠죠. 알려진 거라면 백신이 있을 테고, 우리를 이렇게 격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맥스 –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죠? 아세요?

팻 – 모르고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을 수도 있죠... 어머니 보러 병원에 갔다고 했죠?

맥스 – 골절 때문이에요!

팻 – 그래도... 병원에는 바이러스가 넘쳐나잖아요. 다들 아는 사실이고...

맥스 – 이제 제 탓이라는 겁니까...

둠 – 흥분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 탓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팻 – 그리고 몇 주나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면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게 낫죠.

맥스 – 몇 주나 우리를 잡아둘 거라고 생각해요?

팻 – 모르죠. 지금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시.

맥스 – 그런데 괜찮으세요?

팻 – 괜찮아요... 집에 바로 가서 남편이랑 아이들을 보고 싶긴 하지만...

맥스 – 아니, 그 애긴 됐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 같냐고요.

팻 (*기분 나빠하며*) – 아직은요.

맥스 – 당신은요?

둠 –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군요.

맥스 –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멀쩡합니다.

둠 – 다행이네요, 정말... 우리도 기쁩니다...

맥스가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

맥스 –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둠 – 아니요... 우리를 데려온 영구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창문 가리개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맥스 – 영구차였다고요? 확실해요?

둠 –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 당연히 의료 수송차라고 하려던 겁니다.

팻 – 겨우 십오 분 정도 달렸어요. 역에서 아주 멀진 않을 거예요...

맥스 – 그래도... 여긴 병원은 아니잖아요.

팻 – 아직은 우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맥스 – 이상하네...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지...? (무대를 한 바퀴 돌다가 관객을 보고 얼굴이 굳는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팻 – 저 사람들요? 누구요?

맥스 (관객을 가리키며) – 저 사람들!

팻이 눈을 가늘게 뜨고 앞으로 다가간다.

팻 – 잘 안 보여요... 조명이... 너무 눈부셔서...

맥스 – 저기요! 우리를 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팻 (관객을 발견하고) – 세상에... 저게 뭐예요...? (덤에게) 봤어요?

덤 – 네...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봤죠.

팻 – 그럼 말해줬어야죠!

덤 – 뭐요?

팻 –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잖아요! 듣고도 있고!

덤 – 깜빡했어요... 말해줬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건 없잖아요. 문제 될 말도 안 했고...

팻 – 그랬으면 좋겠네요...

맥스 –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팻 – 악몽 같아요...

맥스 – 저 사람들이 우리 말도 들을까요?

덤 – 오히려 그걸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맥스 – 우리 말을 들으려고요?

팻 – 적어도 관찰하려는 건 맞겠죠. 우리가 ‘관찰 대상’이니까요.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맥스 – 이상하네요. 우리는 저쪽 소리를 못 듣는데.

덤 –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럴겠죠.

팻 – 아니면 유리벽 뒤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맥스 – 유리벽?

팻 – 취조실 같은 데 있잖아요... (눈부신 조명을 보며 눈을 찡그리고) 이런 식으로 눈에 조명을 비추고...

덤 – 저는 취조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요. 적어도 오늘 전까지는.

팻 – 알잖아요. 한쪽에서는 상대가 보이는데, 상대는 이쪽을 못 보는 유리요.

맥스 – 상대요?

팻 – 용의자들!

맥스 –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잖아요.

둠 – 한 가지는 확실하군요. 언젠가 제가 취조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로 유리의 ‘좋은 쪽’에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맥스 – 좋은 쪽...? 어느 쪽이 좋은 쪽인데요?

둠 – 유리의 좋은 쪽이죠!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쪽...

맥스 – 그럼 저 사람들을 취조하고... 우리는 여기서 구경한다는 뜻인가요?

팻 – 맞아요, 말이 안 되네요. 우리는 경찰도 아닌데...

둠 – 당신 말이 그렇다면야...

팻 – 네?

둠 – 취조실에 대해서도 꽤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팻 –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둠 – 글썄요... 바이러스도 거의 다 알고... 취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혹시 ‘그쪽’에서 보낸 사람은 아니죠?

팻 – 그쪽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맥스 – 잠입 요원일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스파이...

팻 – 우리 모두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사람들은 아마 의사들일 거예요. 감염될 위험 없이 우리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는 거죠.

맥스 – 그냥 없는 셈 치면 되잖아요.

둠 – 그래요. 그렇게 하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험실의 기니피그가 아니고, 백명쯤 되는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지켜보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어떤 식으로 죽는지 관찰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샘이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뒤에서 들어온다.

샘 – 안녕하세요...

팻 – 이분이라면 뭔가 알려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의사세요?

샘 – 저는 정보 제공자입니다.

팻 – 정보 제공자요?

둠 – 예전에는 기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맥스 – 아... 그럼 우리랑 같군요.

샘 – 여러분도 다 정보 제공자예요?

맥스 - 아니요... 제 말은, 우리와 같은 처지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 끌려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샘 - 죄송하지만 저도 전혀 몰라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둠 - 네, 네, 그건 됐어요. 우리도 알아요...

샘 - 물어보셔서 대답한 건데요... 다 아시면 왜 물으셨어요?

맥스 -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방금 말했잖아요!

샘 - 그렇다고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맥스 - 죄송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샘 - 그러니까, 기차에서 내리는데... 경찰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 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왜 붙잡혔는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둠 - 체포라고 했나요?

샘 - 명확하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팻 - 저는 '격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샘 - 혹시 '카라텐'이라는 말을 한 게 나이, 그러니까 마흔 살 얘기였던 건 아닐까요?

둠 - 덕분에 상황이 훨씬 명확해졌군요...

샘 - 우리가 이렇게 구금돼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둠 - 이제는 구금이라고요?

샘 - 죄송해요... 관찰 중이라고 하려던 거예요...

팻이 관객을 슬쩍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춘다.

팻 - 그럼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거군요...

샘은 관객을 알아차리지만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다.

샘 - 네...

맥스 - 그럼 당신도 그 기차에 있었어요?

샘 - 13 호차, 40 번 좌석. 여러분은요?

팻 - 42 번.

맥스 - 41 번.

둠 - 43 번.

샘 - 그럼 다들 서로 옆에 앉아 있었네요.

팻 - 아니면 서로 마주 보고 있었거나.

샘 - 같은 사람한테서 감염됐다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누구한테서?

샘이 다른 세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모두 어리둥절해한다.

팻 – 이 옷을 입고 있으니 꼴이 말이 아니네요. 정신병원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맥스 – 하지만 미친 것도 전염되나요...?

샘 – 그래도 신체 접촉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둠 – 아, 혹시 접촉할 생각이 있으셨던 건...

팻 – 기침도 하지 말고요. 꼭 해야 한다면 입을 가리고.

둠 – 전염성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마스크를 안 줬을까요?

팻 – 우리끼리는 이미 소용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이미 다들 사형 선고를... 아니, 감염됐다고 생각한다면...

샘 – 사형 선고요?

팻 – 죄송해요. 감염됐다고 말하려던 거예요.

맥스 – 그렇다면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것도 소용없겠네요.

둠 – 그럼 서로 만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샘 – 그 전에 이름부터 소개하는 게 어때요? (둠에게 손을 내밀며) 샘입니다.

둠은 잠시 망설이다가 샘의 손을 잡는다.

둠 – 둠입니다.

다른 두 사람도 같은 식으로 인사한다.

팻 – 팻이에요.

맥스 – 맥스입니다.

모두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악수한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고, 무대 밖 목소리가 나온다.

목소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말 들리십니까?

잠시 어색한 정적.

샘 – 확인. 감도 5, 명료도 5. 잘 들립니다.

둠 – 다만 이쪽은 다섯이 아니라 넷이지만요.

목소리 – 우선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 직면한 위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긴급히 대응해야 했고, 여러분을 구금한... 아니,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이 격리 시설에 임시로 머물게 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팻 – 그럼 이제 이 보건 위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목소리 - 스피커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할 것입니다. 입구에는 음식이 충분히 든 냉장고와 찬장이 있습니다. 복도로 통하는 문도 있고, 복도에는 여러 방이 있으며 각 방에는 욕실과 미니바가 있습니다. 아주 호화롭진 않지만 필요한 건 다 있을 겁니다...

둠 - 필요한 게 다 있다고요?

목소리 - 테이블 축구도 있습니다.

맥스 - 적어도 이게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팻 - 남편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더 그렇지만...

목소리 - 안심하십시오. 가족, 직장, 고객에게는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잡음이 들리더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팻 - 즐거운 시간이라고요?

둠 - 끝이군요... 이게 전부예요... 이제 입 다물고 기다리는 수밖에...

샘 - 말도 안 돼...

모두 어이없어한다.

팻 -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적어도 상황은 알려야 하니까. *(휴대전화를 꺼낸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요... *(버튼을 누르다가 얼굴이 굳는다.)* 신호가 안 잡혀요... 여러분은요?

둠이 휴대전화를 꺼낸다.

둠 - 저도 안 됩니다.

샘 - 전파 방해기를 쓰는 것 같아요...

맥스 - 왜요?

모두 의아해한다.

팻 - 그럼 정말 세상과 완전히 끊긴 거네요...

둠 - 이제 뭘 하죠?

샘 - 뭘 할 수 있겠어요?

잠시.

맥스 - 일단 먹죠.

둠 - 네?

맥스 -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요.

둠 - 왜 여기 갇혔는지도 모르고, 밖과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이 사람은 먹을 생각밖에 안 하네요...

맥스 - 더 좋은 생각 있어요?

둠 - 없네요...

맥스 - 그럼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전 배고파 죽겠습니다...

맥스가 나간다. 남은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샘 - 사실 저도 조금 배고프긴 하네요...

샘도 나간다.

둠 - 어떻게 생각하세요?

팻 - 굶어 죽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팻이 나간다. 둠은 잠시 망설이다 뒤따라간다. 암전.

제 2 막

조명이 다시 켜진다. 둠과 팻이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무대를 서성인다. 맥스는 태연한 표정으로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며 두 사람을 바라본다.

팻 - 우리 원래 넷 아니었어요?

둠 - 맞아요...

팻 - 네 번째 사람이 사라졌어요...

둠 - 이름이 뭐였죠?

맥스 - 킴.

팻 - 킴?

둠 - 샘이었던 것 같은데.

맥스 - 맞다, 샘...

둠 - 대체 저들이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맥스 - 풀어줬을지도 모르죠.

팻 - 풀어줬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풀어줘요?

둠 - 아니면 죽었거나...

팻 - 죽었다고요? 그 병 때문에...?

둠 - 모르겠어요. (맥스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맥스 - 죽었을 수도 있죠.

팻 – 그래도 식욕은 전혀 안 떨어진 모양이네요...

잠시.

둠 –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팻 – 일주일쯤 아닌가요?

맥스 – 정확히 7 일입니다.

팻 –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일주일. 이러다 정말 미치겠어요.

둠 – 저도요.

팻 – 아직 묶어둘 만큼 미친 건 아니지만, 벌써 가뒤통간 했네요.

맥스 – 어쨌든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요.

둠 – ‘그러라’고요? 대체 누가요?

맥스 – 당국이요. 아니, 보건 당국. 스피커에서 말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팻 – 스피커에서 들린 익명의 목소리뿐이었어요...

둠 – 맞아요. 우리가 뭘 안다고요? 납치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맥스 – 경찰한테요?

팻 – 가짜 경찰일 수도 있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맥스 – 왜 우리를 납치하죠?

둠 – 가족한테 몸값을 요구하려고? 전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도 억만장자는 아닌 것 같고.

팻 – 저한테 있는 건 아파트 하나뿐인데, 50 년짜리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사실 은행 소유 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대출금을 갚게 하려고 은행이 몸값까지 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둠 – 게다가 아무도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맥스 –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둠 – 납치범들이 우리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냥 가버린 걸지도 모르죠. 우리를 풀어주는 건 깜빡하고...

팻 – 아니면 인질극일 수도 있어요. 인질극은 오래 가잖아요. 몇 년씩 계속되기도 하고.

맥스 – 인질극?

팻 – 왜 아니겠어요? 요구 조건이 있고, 당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맥스 – 그럼 여러분은 큰일 났네요.

둠 – 여러분?

맥스 - 아니, 제 말은... 우리요. 우리가 큰일 났다고요. 당국은 오래전부터 테러리스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인질 목숨이 위험해도.

잠시.

팻 - 우리 정말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네요... 아니에요. 그냥 격리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둠 - 그렇게 생각하세요?

팻 -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으니까...

맥스 - 맞아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팻 - 중요한 건 아무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격리라면 언젠가는 내보내 주겠죠...

맥스 - 대체 어떤 ‘악’에 감염된 걸까요?

둠 - 이상하군요. ‘무슨 병’이 아니라 ‘무슨 악’에 감염됐냐고 했어요.

팻 - 병 말고 뭘로 감염될 수 있겠어요?

맥스 - 모르겠어요... 그냥 나온 말이에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둠 - 아무 생각 없습니다. 생각이 있더라도 당신한테 말하진 않을 거고요.

팻이 관객을 바라본다.

팻 - 저 사람들도 아직 그대로 있네요...

맥스 - 저 사람들도 못 나가는 걸지도 모르죠.

팻 - 우리처럼 인질로 잡혀 있다고요?

둠 -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면 왜 아직도 안 나갔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맥스 - 그러게요... 여기서는 별로 흥미로운 일도 안 벌어지는데.

팻 - 리얼리티 쇼 같아요. 이러다 우리까지 지루해지겠어요...

김 박사가 뒤에서 등장한다. 앞서 샘을 연기했던 같은 배우다. 검은색 스탠드칼라 제복을 입고, TV 진행자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

킴 - 친애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놀라 뒤돌아본다.

팻 - 우리랑 같은 환자복이 아니에요. 의사인가 봐요.

둠 - 이상하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팻 -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맥스 -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둠 - 드디어!

팻 -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우리를 풀어주는 건가요?

킴 - 아직은 아닙니다...

둠 - 그럼 먼저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부터 말해주시죠.

킴 - 저는... 여러분의 리포머입니다.

팻 - 리포머요?

킴 - 여러분을 다시 '정상'의 틀에 맞추러 왔습니다.

팻 -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종교재판관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둠 - 내일은 구원자라고 부르겠군요.

팻 - 그런데 의사세요?

킴 - 의사인지는 몰라도 박사인 건 확실합니다... 킴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러 왔죠.

둠 - 치료요?

킴 - 이를테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는 겁니다. 치유의 길로...

팻 -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킴 - 여러분을 리포맷해서요. 아직 가능하다면...

팻 - 그럼 백신은 없다는 거네요.

맥스 - 참 안심되는 말씀이군요...

팻 - 대체... 왜 우리를 여기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제는 말해줄 때도 됐잖아요.

킴 -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맥스 - 위험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킴 -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감염됐는지 지켜보는 중이죠...

둠 - 그런데 우리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잖아요!

킴 - 치료법이 없습니다.

둠 - 의학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팻 - 우리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킴 - 잠복기가 아주 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둠 - 정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죠?

킴 - 그 점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둠 - 하드디스크가 고장 난 로봇하고 이야기하는 기분이군요. 바이러스에 걸린 건 오히려 당신 아닌가요?

팻 - 확실한 건 우리가 일주일째 여기 갇혀서 가족과 아무 연락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둠 – 전화조차도요!

팻 – 통신망을 막아놔어요. 바이러스가 전화로도 전염되나요?

킴 –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죠...

팻이 관객을 가리킨다.

팻 – 그리고 저기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킴 – 저 사람들도 실험 대상입니다.

팻 – 저 사람들도요? 그럼 우리 역시 실험 대상이라는 거네요.

킴 – 여러분처럼 심하게 감염된 사람들을 오래 보고 들은 뒤,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둠 – 우린 저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잖아요!

킴 – 그렇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봅니다.

맥스 – 실험실 햄스터가 된 기분이네요.

팻 – 운동이라도 하게 쳇바퀴가 있으면 좋겠는데.

킴 – 장난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팻 – 그래서 대체 무슨 바이러스인데요?

킴 – 사실... 정확히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맥스 – 그럼 뭔데요?

킴 – 정확히는, 보기만 해도 혹은 듣기만 해도 전염될 수 있는 무언가에 가깝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모방을 통해 퍼지는 거죠.

둠 – 아, 이제 훨씬 이해가 잘 되는군요.

킴 – 13 호차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부적절하고 일탈적이며, 따라서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팻 – 어떤 행동이요?

킴 – 정말 기억이 안 납니까?

팻 – 안 나요.

킴 – 아무도요?

둠 – 없습니다.

킴 – 두고 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전염성을 갖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여기 격리한 겁니다.

팻 – 전염성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면서요!

킴 – 정확히 말하면, 그 위험한 일탈 행동을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팻 – 그럼 우리가... 전염성이 없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얼마나 더 여기 가둬둘 건가요?

킴 – 그 점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맥스 – 뭘 기억하라는 거죠?

킴 – 13 호차에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팻 – 하지만...

킴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곧 다시 만나죠. 그동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팻 – 알려주라고요? 어떻게요? 우린 여기 갇혀 있고 밖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룸 서비스하고도요...

킴 – 걱정 마세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둠 –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요?

킴이 나간다.

팻 – 기억하라...

맥스 –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둠 – 아니요... 당신은요?

팻 – 저도 없어요...

둠 – 그리고 뭔가 기억난다고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맥스 – 왜요?

팻 (*관객을 가리키며*) –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둠 – 그건 잊을 수가 없겠군요.

맥스 – 누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 일탈 행동을 덜 하게 되지 않나요?

둠 – 일탈 행동이 뭔데요?

팻 – 무엇을 기준으로 일탈이라는 거죠?

맥스 – 그건... 모르죠...

팻 – 이제는 모르는 거죠.

둠 – 언젠가는 알았을 텐데... 잊어버린 겁니다.

잠시.

맥스 – 이런 얘기 하니까 배고프네요. 안 그래요?

맥스가 나간다.

팻 – 저 사람은 정말 먹는 생각밖에 안 하네요.

둠 - 저 멍청이가 우리를 감시하러 들어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팻 - 우린 이미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둠 - 내부에서 감시한다는 뜻이죠.

팻 - 스파이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

둠 - 그래요... 저일 수도 있고.

팻 - 당신은 그쪽 사람 같진 않아요.

둠 - 오히려 당신이 스파이일 수도 있죠. 저를 말하게 만들려는 거고.

팻 - 그렇다면 별로 성공적이진 않네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둠 -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팻 - 그럼 제가 말할게요.

둠 - 마음대로 하세요.

팻 -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전히 사실은 아니에요.

둠 - 정말요?

팻 -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둠 - 듣고 있습니다... *(관객을 가리키며)* 우리 모두가 듣고 있죠...

팻 - 기차에서 우리 옆에 앉아 있던 커플이 기억나요.

둠 - 그래요...?

팻 -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둠 - 이야기요?

팻 - 미친 사람 이야기.

둠 - 궁금하네요.

팻 - 미친 사람이 거울을 하나 줍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더니 말해요. “이 멍청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다른 미친 사람이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고 대답하죠. “당연하지. 그 멍청이가 나잖아!”

둠 - 그게 미친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팻 - 적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사람은 미친 사람뿐이죠.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둠 - 그렇죠...

팻 -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둠 - 그럴 수도 있고요.

팻 - 그 객차에서 저랑 같이 들었잖아요.

둠 –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팻 –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련 하듯 흔들렸고요. 입을 벌리더니 끊어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둠 – 소리요? 어떤 소리?

팻 – 하, 하, 하!

둠 – 하, 하, 하?

팻 – 하, 하, 하!

팻이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한다.

둠 –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다음은요?

팻 – 아파 보이진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더니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둠 – 역시 전염되는군요. 그리고요?

팻 –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둠 – 그렇군요...

팻 – 당연히 알죠. 당신도 저처럼 거기 있었잖아요.

둠 – 기억나지 않아요...

팻 – 전 스파이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잠시. 둠이 팻을 관객에게서 멀리, 무대 뒤쪽으로 데려간다.

둠 – 그건 ‘웃음’이라고 합니다.

팻 – 네?

둠 – 방금 당신이 증상을 설명한 그 전염병 말이에요. 그걸 ‘웃음’이라고 합니다.

팻 – 웃음? 그게 뭐예요?

둠 – 보건 당국이 박멸하는 데 성공했던 병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었던 모양이지만요. 보시다시피.

팻 – 대체 어떤 병이었는데요?

둠 – 아주 오래된 병이죠.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증상 자체는 비교적 가벼웠지만 사람을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몰아갔어요. 저들이 말하는 ‘일탈’ 말입니다...

팻 – 그런데 방금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신은 안 웃었잖아요.

둠 – 두 번째 들으면 원래 덜 웃기죠. 게다가 우리는 웃는 습관을 잃었어요. 뭐가 웃긴지도 이제 모르고요.

팻 – 웃기다?

둠 – 웃기다. 또는 우습다.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 우리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팻 – 당신은요? 가끔... 웃어요?

둠 – 몰래 말인가요? 공개적으로는... 웃다가 들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팻 – 그래서요?

둠이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둠 – 전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요.

팻 – 테러 조직?

둠 –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요. 우리는 몰래 모임입니다. 웃긴 이야기를 하고 웃죠. 아니,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팻 – 미친 사람 이야기 같은 거요?

둠 – 당국을 비웃는 데 꼭 미쳐야 하나요? 심지어 최고지도자를 비웃는 것도...

팻 – 하지만 당국을 비판하는 건 금지돼 있잖아요? 최고지도자를 모욕하는 건 신성모독이고.

둠 – 옛날에는 신성모독도 허용됐습니다.

팻 –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둠 – 책을 발견했어요.

팻 – 책?

둠 – 신문도요.

팻 – 그건 또 뭐예요?

둠 – 태블릿 같은 건데, 글자가 검은 잉크로 종이에 인쇄돼 있어요.

팻 – 포장지처럼요?

둠 –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는 게 아니라서 통제가 불가능하죠.

팻 – 당연히 금지돼 있겠네요.

둠 – 금지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다른 시대였죠.

팻 – 기억이 안 나요.

둠 – 모두가 잊어버린 시대예요. 당국이 그렇게 만들었죠. 특히 책을 전부 불태워서.

팻 – 웃음이라...

둠 – 옛날에는 웃음이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벌, 개미, 흰개미 같은 사회적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팻 – 그래도 지능은 남아 있잖아요.

둠 –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교사는 훈련관이 됐고, 정치인은 리포머가 됐습니다. IT 기술자는 정보처리원이 됐고, 이제는 거의 정보처리기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맥스가 돌아온다. 두 사람은 즉시 대화를 멈추고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팻 – 잘 먹었어요?

둠 – 맛있었나요?

맥스 – 훌륭했죠.

팻 – 오늘은 뭐였어요?

맥스 – 피자.

둠 – 또요?

팻 – 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가둬놓고 피자만 먹일 건지.

맥스 – 전 피자 좋은데요.

둠 – 탈출하면 어떨까요?

맥스 – 탈출이요? 그건 금지돼 있잖아요?

둠 – 물론이죠... 농담입니다.

맥스 – 당연히 금지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요.

둠 – 특히 관객을요. 지금은 별로 웃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맥스 – 그리고 어차피 금방 잡힐 겁니다...

둠 – 좋아요... 그럼 뭘 하죠?

팻 – 피자 남았어요?

맥스 – 냉동실에 잔뜩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둠 – 같이 가죠.

둠과 팻이 나간다. 킴이 돌아온다.

킴 – 그래서? 뭔가 정보를 캐냈습니까?

맥스 – 전혀요... 제가 정보 제공자로서 별로 소질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킴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의견 정도는 있겠죠?

맥스 – 뭐가요?

킴 –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맥스 – 아무 생각 없습니다. 대장님이 늘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킴 – 어차피 저 사람들에게 대한 파일은 이미 있습니다.

맥스 – 저에 대한 파일도 있어요?

킴 - 당연하죠! 포상금을 타려고 자기 자신을 경찰에 밀고한 뒤, 그 기록까지 직접 작성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맥스 - 기억하죠... 덕분에 십 년 동안 수용돼서, 대장님 표현대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킴 - 모두가 당신 같다면 우리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믿으세요.

맥스 - 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합니까, 대장님?

킴 - 아직도 의심합니까?

맥스 - 아니요, 물론 아니죠...

킴 - 저들에게서 아무 정보도 끌어내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새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당신의 모든 일탈적 생각을 목록으로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맥스 - 알겠습니다, 대장님.

맥스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관객 쪽을 본다.

킴 -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맥스 -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킴 -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뭘니까?

맥스 - 그냥 궁금해서요...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킴 - 폐관된 극장입니다.

맥스 - 극장이요?

킴 -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던 곳이죠.

맥스 - 웃으려고요?

킴 - 그때는 합법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었죠. 당국까지도.

맥스 - 최고지도자도요?

킴 - 자기 자신까지도요.

맥스 - 다행히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군요.

킴 - 그렇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진 마세요...

맥스 - 보고서나 쓰러 가겠습니다.

맥스가 나간다. 킴이 관객 쪽으로 다가간다.

킴 -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위험한 증상은 없고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진 않습니까? 좋습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조금 있다가 내보내 드리죠...

킴이 나간다. 뚝과 팻이 돌아온다.

뚝 - 저 사람인 것 같아요?

팻 – 누구요?

둠 – 샘! 저 사람이 스파이라고 생각하세요?

팻 – 그럼 이제 제가 스파이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군요.

둠 – 네.

잠시.

팻 – 그 커플, 당신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죠.

둠 – 무슨 커플요?

팻 –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둘이 함께 웃었던 그 커플요.

둠 – 제가 기억한다고 왜 생각하죠?

팻 – 그 커플이 바로 우리였으니까요.

둠 – 그럴지도 모르죠. (잠시) 그전에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팻 –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마치... 제 몸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둠 – 이해해요. 처음은 원래 그래요.

팻 – 당신은요? 예전에 다른 여자들과 웃어본 적 있어요?

둠 – 네. 다른 여자들과도. 다른 남자들과도. 가끔은 여러 명이 같이.

팻 – 여러 명이...

둠 – 좋았어요?

팻 – 저... 잘 모르겠어요...

둠 – 좋았잖아요.

팻 – 네...

둠 – 두고 보세요. 한 번 시작하면 나중엔 끊기 힘들어요.

팻 – 바로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가둔 거겠죠?

둠 – 네... 우리 맞은편에 있던 두 사람은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팻 – 우리를 여기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알아봤어요.

둠 – 그럼 알고 있었군요.

팻 –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웃었다고 저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둠 – 웃음은 파괴력이 있어요. 저들도 그걸 압니다.

팻 – 파괴적이라고요? 건강에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둠 – 건강에는 아니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웃음이 위험한 건 저들에게입니다.

팻 – 왜요?

둠 – 무엇이든 웃음거리로 삼기 시작하면 훨씬 덜 순진해지고, 따라서 훨씬 덜 순종적이 되죠. 웃음은 체제를 흔드는 전복적인 힘이 있습니다...

팻 –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둠 – 모르겠어요.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팻 – 두려워한다고요?

둠 – 이 웃음이 전염되고, 이 유행병이 체제 전체를 휩쓸어 저들까지 함께 쓸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죠...

팻 –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까요?

둠 – 이미 생각해 봤겠죠. 하지만 모두를 죽일 수는 없어요...

팻 – 그럼 어떻게 하죠?

둠 – 다른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팻 – 다른 농담요?

둠 – 어차피 죽을 거라면, 웃다 죽는 편이 낫죠...

팻 – 미리 말해두는데, 저 결혼했어요.

둠 – 걱정 마세요. 웃는 건 바람피우는 건 아니니까.

팻 – 들어볼게요...

둠 –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팻 – 여기 있지 말아요.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둠 – 맞아요... 제 방으로 가죠...

두 사람이 나간다. 킴과 맥스가 돌아온다.

맥스 – 여기 있습니다, 대장님. 제 보고서입니다.

킴 – 별로 두껍진 않네요... 빠뜨린 건 없습니까?

맥스 – 절대 없습니다, 대장님.

킴 – 두 사람은 어디 갔죠? 설마 탈출한 건 아니겠죠...

맥스 – 자기 방에 있을 겁니다.

둠과 팻이 큰 소리로 웃는 소리가 들린다.

킴 – 이제 적어도 확실해졌군요.

맥스 – 네... 정말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는다. 조금 당황하면서도 어딘가 흔들리는 표정이다.

킴 - 당신은 웃어본 적 있습니까?

맥스 - 없습니다. 대장님은요?

킴 -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맥스 - 모르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또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무대 밖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킴 -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암전.

제 3 막

킴은 여전히 검은색 스탠드칼라 제복을 입고 서 있다. 둠, 팻, 맥스는 앉아 있다. 둠과 팻은 여전히 파랑·분홍·초록 계열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맥스는 이제 의료진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다.

킴 - 친애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팻 -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둠 - 우린 죄수예요!

킴이 헛기침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말한다.

킴 - 그래서 여러분을 집단 치료에 모셨습니다.

팻 - 심문이라고 하려는 거죠...

킴 -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여기 온 뒤 웃음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격리되기 전부터 이미 감염돼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사람에게서 옮았다는 뜻이죠.

둠 - 이미 알고 있다면 이런 수사 흉내는 왜 하는 겁니까?

킴 -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치료의 일부니까요...

맥스 - 우리가 웃었다고요? 우리는 ‘웃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팻 - 됐어요, 그만해요... 당신이 스파이라는 건 다 알았으니까.

맥스 - 아니, 정말 저는...

둠 -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스파이죠.

맥스 - 좋아요, 잠입 요원일 수는 있어도 스파이는 아닙니다. 스파이라는 건 나쁜 편에 있을 때 쓰는 말이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편이죠, 대장님?

킴 - 이분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정보 제공자입니다.

둠 - 그럼 당신은 정확히 뭐죠?

킴 - 저는 여러분의 리포머입니다.

둠 - 리포머?

킴 - 여러분을 리포맷하러 왔습니다.

둠 - ‘리포머’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죠.

킴 -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둠 - 그 사전을 전부 다시 써버린 게 당신들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래된 백과사전 한 권을 찾아냈고, 이 단어들이 옛날에 무슨 뜻이었는지 압니다.

킴 - 이제 각 단어의 뜻을 정하는 것은 당국의 권한입니다. 오직 국가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해서요.

둠 - 성경까지 전부 다시 썼잖아요! 신을 최고지도자로 바꾸고! 과거의 흔적을 없애려고 책도 모조리 불태웠고!

킴 - 모조리 태운 건 아닌 모양이군요. 몇 권은 읽어보신 것 같으니까.

둠 - 오늘날 읽을 수 있는 건 전부 당신들이 완전히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화면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팻 - 그러니까 우리를 리포맷하겠다는 거군요... 하드디스크를 지우고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듯이?

둠 - 아마 백신 프로그램도 깔겠죠...

킴 - 웃음은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한 번 웃으면 다시 웃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팻 - 그럼 웃음이 마약이라는 건가요?

둠 - 적어도 독한 마약은 아닌 것 같군요.

킴 - 웃음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낫는 법이 없죠. 웃지 않고 지낼 수는 있어도, 유혹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맥스 - 한 번 알코올중독자가 되면 평생 알코올중독자죠.

킴 - 잘 아시는군요. 당신은 십 년 동안 중독 치료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몰래 술을 마셨고, 스스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기까지 했죠.

맥스 - 지금은 술 안 마십니다.

둠 - 대신 얼마나 먹어대는지...

맥스 - 그럼 이 치료는 익명의 알코올중독자 모임 같은 겁니까?

킴 - 맞습니다... ‘익명의 웃음꾼’ 모임이죠.

팻 - 몰래 웃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군요.

킴 - 정확합니다.

둠 - 어떻게 찾아낼 생각이죠?

킴 -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웃긴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누가 웃는지 보면 되겠죠.

팻 - 알겠어요. 일종의 검사군요.

둠 - 이상하군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당신이 누구를 웃게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킴 - 왜 그렇죠?

둠 - 웃으려면 적어도 서로 동의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상대와 웃어야 하니까요.

팻 - 그러니까 지금, 먼저 웃는 사람은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둠 - 아니면 더 나쁘게, 처형되거나.

킴 - 어떻게 알았죠?

팻 - 벌써 웃겨 죽겠네요...

킴 - 그래도 이야기는 해보죠.

맥스 - 듣고 있습니다, 대장님.

킴 - 미친 사람이 거울을 하나 줍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더니 말하죠. “이 멍청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다른 미친 사람이 거울을 받아 보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나잖아.”

맥스 - 완전히 바보 같은 이야기네요.

킴 - 그래서 웃긴 거 아닌가요? 아마도.

둠 -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달렸죠.

팻 - 그리고 특히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킴 - 그래요?

팻 - 웃으면 처형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웃기 쉽겠어요?

킴 - 그렇습니까?

팻 - 당연히 아니죠.

킴 - 무슨 말인지 알겠군요... 그럼 이렇게 하죠... 먼저 웃는 사람이 벌칙! 나랑 해볼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맥스 - 제가 하겠습니다, 대장님.

킴 - 좋아... 네가 웃으면 지는 거야...

두 사람은 각각 물 한 잔을 마신 뒤 물을 입 안에 머금는다. 서로의 턱을 잡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지켜 본다. 조금씩 맥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결국 웃음이 터지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상대의 얼굴에 뱉는다. 웃음은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킴 - 그럼 모두 감염됐군요...

둠 - 이제 저 사람도 우리 편이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웃기 시작했으니까...

킴 (맥스에게) - 좋아요. 당신은 이제 정말 격리됐군요.

맥스가 진지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쓴다.

맥스 -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맥스는 웃음을 멈출 수 없다.

킴 - 그게 웃깁니까?

맥스 - 전혀요! 아니, 웃기긴 한데...

둠 - 보세요.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웃기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웃기려고 하지 않을 때요...

모두 약간 히스테릭하게 계속 웃는다. 킴은 웃음이 몹시 불편하고 거의 두려운 듯하다.

킴 - 당장 웃음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웃음 발작에 휩쓸려 멈추지 못한다. 킴은 귀를 막고 황급히 나간다. 둠, 팻, 맥스의 웃음도 서서히 잦아든다.

둠 - 어때요? 어떤 느낌이죠?

맥스 - 웃는 거요? 모르겠어요... 아픈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꽤 기분 좋네요.

팻 - 아주 좋아요...

맥스 - 적어도 속은 후련하네요.

둠 - 옛날에는 공공장소에서 웃는 것도 허용됐다는군요...

팻 -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거죠?

둠 -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조금씩 퍼져갔어요. 처음에는 특정한 것들을 웃음거리로 삼는 걸 금지했죠. 종교부터...

맥스 - 그리고 당국도, 물론.

둠 - 그러다 최고지도자를 새로운 신으로 만들었고, 모든 비판은 신성모독이 됐습니다.

맥스 - 술도 금지됐죠. 취하면 더 쉽게 웃게 되니까.

둠 - 당국은 아직 웃어도 되는 주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목록은 점점 짧아졌죠.

맥스 - 결국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웃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둠 –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든 것을 웃음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가 결국 ‘아무것도 웃음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로 변한 겁니다...

맥스 – 결국 자기 자신을 보고 웃는 것조차 금지됐죠...

둠 – 가난한 사람조차 자기 불행을 웃어넘길 권리가 없었습니다.

팻 – 그런데 그런 금지령을 어떻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둠 – 당국은 웃음을 정신질환처럼 취급했습니다. 웃다가 들킨 사람은 즉시 수용됐죠.

맥스 – 그리고 당연히 웃고 싶게 만드는 건 전부 없었습니다.

둠 – 신문 금지, 극장 폐쇄, 전면적인 자기검열...

맥스 – 광대, 코미디언, 배우들은 위험한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았고요.

둠 – 옛날에 나병을 다루듯 웃음을 다뤘습니다. 웃는 소리를 들켰다는 이유로 집 안에 산 채로 가두고, 출입구를 벽으로 막아버린 사람까지 있었죠.

맥스 –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둠 –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한다는 핑계였죠. 실제 목적은 누구 얼굴에서도 미소조차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입마개가 된 거죠.

맥스 – 옛날 일부 종교처럼요.

둠 – 당국 자체가 유일한 종교가 되기 전 이야기죠.

맥스 – 조금씩 아무도 웃는 소리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둠 – 웃음을 금지한다는 건 당연히 비판과 항의도 금지한다는 뜻이었죠.

맥스 – 사회적 갈등도, 정치 토론도 사라지고, 따라서 선거도 사라졌고요.

둠 – 세속 독재든 종교 독재든, 많은 독재 체제에서 이미 그랬던 것처럼요.

맥스 – 당국은 이 병을 완전히 박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산발적인 사례가 다시 나타났죠. 여러분이 그중 하나입니다.

팻 –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건가요?

맥스 – 여러분은 상습 웃음꾼, 즉 교정 불가능한 사람들로 분류됐습니다. 제거하기 전에 실험에 이용하려 했던 거죠.

팻 – 실험이요?

맥스 – 여러분과 접촉한 관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웃음이 건강한 집단에 어떤 파괴력을 보이는지 연구하려고요.

팻이 관객을 바라본다.

팻 –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웃겨야 했다는 거예요?

둠 –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안 웃긴 농담 몇 개뿐인데...

팻 – 다시 웃는 법도, 남을 웃기는 법도 배워야겠네요.

잠시.

맥스 –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둠 – 세상의 끝은 아니죠.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관은 다시 교사가 되고, 리포머는 정치인이 되고...

맥스 – 저 같은 정보 제공자는요?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둠 –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배우가 되면 되죠.

암전.

제 4 막

팻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다가 관객 쪽으로 다가간다.

팻 –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풀려날 거예요. 아마도...

둠이 들어온다.

둠 – 새 소식 있어요?

팻 – 아직 없어요. 밖에서 조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 것 같긴 한데, 아주 희미해요.

둠 – 극장은 원래 방음이 아주 잘되니까요.

팻 – 그 스파이는 어디 갔어요?

둠 – 남은 피자를 끝내고 있어요...

팻 – 우린 아직도 여기 갇혀서 세상과 단절돼 있어요. 며칠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소식도 없고.

둠 – 냉동실까지 비면 굶어 죽겠네요. 웃다 죽을 줄 알았더니...

팻 –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둠 – 격리되기 전부터 이미 죽어 있던 건 아닐까요...?

팻 – 맞아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진짜 병은 ‘침울증’이었는지도 몰라요.

둠 – 그렇다면 웃음은 오히려 해독제겠죠.

맥스가 돌아온다.

맥스 –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둠 – 아니요...

세 사람이 모두 귀를 기울인다.

팻 – 아, 그러네요... 아주 멀리서 들려요...

둠 – 폭발음... 같은데요?

맥스 – 폭발이요? 웃음 폭발이겠죠.

킴이 돌아온다. 얼굴은 초췌하고 웃은 흐트러져 있다. 손에는 ‘웃음 금지’ 표지판이 들려 있다. 빨간 테두리의 둥근 표지 안에 활짝 웃는 이모티콘 얼굴이 있고, 그 위로 빨간 사선이 그어져 있다.

맥스 –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킴 –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맥스 – 좋은 쪽으로는 아닌 것 같군요.

킴 – 누구에게 좋은가에 따라 다르죠.

맥스 – 유행이 퍼지고 있습니까?

킴 –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 팬데믹이 됐습니다. 완전히 통제 불능의 웃음 발작이에요. 온 세상이 집단적인 웃음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웃음이 폭발하고 있고요.

맥스 – 그렇게 심각합니까?

킴 – 거리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완전히 손을 놓았어요. 더 심각한 건 경찰관들 중에도 이미 웃다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턱이 빠질 만큼 웃고,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웃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고, 미친 듯이 웃어대고, 바닥을 툭툭고, 웃다가 오줌까지 지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고 있습니다!

맥스 – 웃다가 울기도 합니까?

킴 – ‘미친 사람이 많을수록 웃음도 커진다’는 옛말을 압니까?

맥스 – 모릅니다.

킴 – 지금은 전 세계가 미쳐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둠 – 그럼 혁명이 시작된 거군요...

킴 – 체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사임했고, 최고지도자는 나라를 떠났습니다.

맥스 – 최고지도자가요? 어디로 갔는데요?

킴 – 바티칸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거기라면 적어도 웃다 죽을 걱정은 없겠죠.

팻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킴 – 더 이상 여러분을 격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둠 – 드디어... 정말 보고 싶군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웃고, 대중교통에서 웃고, 내일이면 영화관이나 극장에서도 다시 웃음소리가 들릴지도 모르죠.

킴 – 저는 전혀 웃기지 않는데요.

팻 –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실컷 웃어요!

둠 – 이 이야기 아세요? 온 세상에서 웃음을 금지하려던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맥스 – 결국 자기 웃음에 목이 막혀 죽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크게 웃기 시작한다. 킴도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곧 웃음이 경련으로 바뀌면서 쓰러진다. 팻이 몸을 숙여 킴을 살핀다.

팻 – 죽었어요! 정말 웃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맥스 – 최근 관찰된 현상입니다. 당국 책임자들은 천둥 같은 웃음소리에 노출되면 벼락을 맞은 듯 쓰러져 죽더군요.

둠 –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행을 막으려 했던 거군요.

팻 (맥스에게) – 그런데 당신은 안 죽었네요.

맥스 – 아마 그 체제를 이미 믿지 않게 됐기 때문이겠죠...

둠 –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은 셈이군요. 우리처럼!

팻 – 그럼 우리는 자유인가요?

둠 – 다시 뭐든 웃을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팻 – 우리는 조류독감이나 ‘칭따오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맥스 – 이제 뭘 하죠?

둠 – 다시 웃는 법을 배우죠.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팻 – 조금 무서워요...

둠 – 당연해요. 해방된 노예들도 처음에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맥스 – 그럼 다시 술을 마셔도 됩니까?

팻 –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술이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맥스 – 멋지군요! 하지만 정말 아찔하긴 하네요.

둠 – 그래요... 우리는 죽은 마술사의 비둘기들입니다.

맥스 – 무슨 뜻이죠?

둠 – 우리는 마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에서 불러낸 마술사는 이제 없어요. 우리를 탄생시킨 그 마술의 비밀도 모르고, 이 날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팻 – 멋진 말이네요.

둠 – 시예요.

팻 – 시요?

둠 – 그것도 금지됐던 것 중 하나죠.

팻 – 그런 게 또 있어요?

둠 – 많죠! 오르가슴도 그렇고. 그것도 뭔지 모르죠?

팻 – 말씀드렸잖아요. 저 결혼했어요...

둠 –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보여드리죠... 오르가슴이 사랑에 하는 역할은, 웃음이 지성에 하는 역할이나 재채기가 감기에 하는 역할과 같죠. 병을 낫게 하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련합니다.

킴이 의식을 되찾는다.

팻 – 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나 봐요.

맥스 – 이 사람도 이제 그 체제를 별로 믿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킴 –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팻 – 웃음 발작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맥스 – 관객은요? 잊고 있었네요.

둠 – 이제 다시 아무 처벌 없이 저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으니...

맥스 – 그래도 됩니까, 대장님?

킴 – 여긴 극장이잖아요.

둠 – 그럼 새로운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야겠군요.

킴 – 그래요. 거울을 보는 미친 사람 이야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둠 – 사실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킴 – 상징적이라고요? 또 그게 뭔데요?

둠 – 유머는 거울입니다. 배우가 관객에게 내미는 거울이죠. 관객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우스운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거울.

팻 – 누구나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둠 – 누구나요. 다만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일그러진 얼굴을 보기 싫어서 거울을 깨버리려는 미친 사람들만 빼고.

맥스 – 그럼 웃읍시다!

둠 –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지난 세기의 한 코미디언 말을 빌리자면, “자유는 쓰지 않을 때에만 닳는다.”

팻 – 함께 웃읍시다. 무엇이든 웃음거리로 삼읍시다...

맥스 – 오늘 무엇이든 웃음거리로 삼을 수 없다면, 내일은 아무것도 웃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맥스가 ‘웃음 금지’ 표지판을 낚아채 킴의 머리 위로 씌우듯 내리친다. 모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미리 녹음한 웃음소리로 그 웃음을 증폭할 수 있다.

암전.

끝

저자 소개

西入裳輕 訣輕涛外趣(Jean-Pierre Martinez)鎌 1955 鎧 賑斤趣 穰醇輕若輕薪傷素(Auvers-sur-Oise)裳私 締焦賀寿寒寬 跡隨 綬赤 鉦俱 隈 甲犧裳私 犧俱謙熊 這幾祢 騎 異案 懇掌裾 瓜輩欄棲 熊 凄埜隨言, 瀨縛 迭駒妻責 綬過衍穰芸 栖b芸 ㄣ茸 臼栖b裾 運熊 蟻焦諮寿寒寬

確鎌 捷 100 篤裾 迭駒妻責 綬過衍穰芸 爽菲埜隨言, 馬誓映創 123 篤裾 畔閭崇 兕頓埜寿寒寬 確裾 蝶孜吃職 畔閭隨 鉦俱 症焦熊 膏鍾棄焦 賑斤趣芸 妻鋤捻 雌裕 100 鉦 ㄣ稻 瀨嗣裳私 委障棄案 政寿寒寬

西入裳輕 訣輕涛外趣裾 栖難隨 馬環 酸拍職 是b意裕, 蔭隅, 薪障, 拙拓資 鞠裾 鮮畏芸 炊謙職 檣棲 婚 尖桁, 急熊鎌 再禽蝶孜吃芸 田捻 寬慧寒寬

確裾 畔閭 責後隨 委需 須酸賴套裳私 吳刑熊 制案 寬診熊犧寧 赦 政寿寒寬 患, 孤祇 委ㄣ 委障隨 酸責 裳 委障 納b芸 昂傷掌 熱寒寬

祢稻焦熊 膏鍾機 栖難 峠瀨創 血釣
jeanpierremartinez.net

저작권 및 공연 안내

續棲 Jean-Pierre Martinez
膏鍾 弘 bl始 續棲

穀 栖難裾 撤趣套鎌 續栖蔭講裾 刻輩芸 昂寿寒寬 續栖棲裾 酸責 納b 粧瀨 栖難裾 責婚 京鎌 凄婚芸
告摂, 港鳶, 短到, bl始 京鎌 号杯需鎌 囊凶鎌 蔚創気寒寬

穀 畔闇髓 n是脊是 鞞勤崇 己脊随熊 吳刑熊 制案 寬診熊犧寧 赦 政寿寒寬

碓俱過 賑熊 弘 傷決淡焦芸 昆後濡案 孤祇 委n 委障裳鎌 酸責 納bb 菲申濡言, 捻汗 委障裳 虐鷄 續
栖蔭刑芸 創昆捻掌 熱寒寬

西入裳輕 訣輕涛外趣(Jean-Pierre Martinez)鎌 賑斤趣 栖b·栖闇b 拝拍是 **SACD** (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芸 田捻 續栖蔭 意桁芸 昂案 政寿寒寬

委障 納b 弘 續栖蔭裳 意祢 後裾鎌 傷禁 委需 須酸賴套芸 田捻 捻鮮綬瓜 慌均寒寬

障桐題 峠瀨創 血釣

<https://jeanpierremartinez.net/en/contact-2/>

傷妻慳 - 2026 鎧 10 尋

© Jean-Pierre Martinez